

협회소식

NEWS

본회, 사료 부가세 영세율 조정 의도에 대한 성명서 발표

본회(회장 : 전동용)를 비롯 축협중앙회(회장 : 송찬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 김남용), 대한양계협회(회장 : 최준구)등 4개 생산자 단체는 지난 1월 8일 공동으로 “사료 부가세 영세율 조정 의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서에서 본회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들은 “IMF한파에 따른 환율인상으로 사료 등 가축사료 가격의 폭등으로 전국 도처에서 축산업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는 때에 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철회하려는 재경원의 방침에 대해 만약 이러한 발상이 사실이라면 이나라 축산업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의도로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환율인상으로 지난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배합사료 가격은 40%나 인상된 뒤 올 1월 8일을 기해 또다시 배합사료 업체로부터 9%선 인상을 통보받고 있고, 종전의 외상거래 관행에서 현금거래 방식으로 전환되자 농가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가축방매와 도산과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한 “이에 더하여 가축의 시세 폭락등 축종별로 가격이 하락됨으로써 사상 최악의 고통으로 축산기반이 근본적으로 붕괴되는 상황하에 축산업 안정 대책마련이 화급을 다투는 터에 불거져 나온 부가세 영세율 철회 운운은 정부가 나서서 우리 양축가로 하여금 생업을 포기하라는 강요행위가 아닐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생산자 단체들은 사료의 부가세 영세율 조정관련 발상 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축산농가의 도산으로 인해 야기될 향후 나라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큰 국민적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라며, 정부가 시급히 안정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본회, “사료 부가세 영세율 계속 유지” 진정서 제출

본회는 정부가 세수확보를 이유로 배합사료, 축산용 기자재, 농약 등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폐지하고 면세조치 하기로 한 재경원 방침에 대하여 이를 시정해 줄 것을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본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3개

생산자 단체는 지난 14일 대통령과 국회의장, 재경 원장관, 농림부 장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비상경제대책위원장, 국민회의 등 각 정당 총재와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위원, 농림해양수산위원, 김종호 의원 등 축산관련 정부 기구 및 인사들에게 제출하였다.

진정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 시행 6개월만에 이를 반복하려는 정책은 축산을 포기하라는 뜻이라며, 현행대로 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를 적용을 실시해 주도록 강력 건의하고 있다.

진정서는 “최근 치솟은 환율 인상으로 인하여 지난 12월 10일 이후 1개월간에 사료 가격이 53%나 폭등했고, 가축의 방매, 어린 가축의 매몰 등 축산농가는 사육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는데, 사료부가세 영세를 적용을 철폐하는 것은 축산업계의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계속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본회, 배합사료 수급 안정대책 건의

-동원가능 자금 사료유통 자금에 우선 지원해야

사료구입난이 심화되면서 본회를 비롯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대한양계협회 등 3개 생산자 단체는 지난 12월 26일 “배합사료 수급 안정을 위한 건의문”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최근 사료 파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양축가에 대한 사료구매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미흡함으로 정부에서는 모든 동원 가능한 자금을 배합사료 유통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축산업이 약 2~3개월의 사료대 외상과(약 7~8천억) 정부의 축산발전기금 지원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져 있는데, 사료외상 대금의 회수와 사료의 현찰 구매, 융자금 상환 등은 축산업계의 자금흐름을 막고 축산업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한 자금외에는 배합사료 유통자금에 쓰일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고 있다.

본회, 양돈농가 사료구입 실태조사 실시

-전남북지역 6개지부 순회 조사

본회는 최근 사료값 인상과 돼지값 폭락에 따라 지난 12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전남·북지역 지부를 순회하며 양돈농가의 애로사항과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를 벌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본회 정호풍 지도부장이 실시하였으며, 광주·장성·담양 지부를 비롯 전주, 정읍, 고창, 김제, 익산지부 등 6개 지부를 방문하여 이뤄졌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부회원들은 사료가격은 인상됐으나 사료의 질은 매우 나쁘다고 밝히고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료구입난을 덜 수 있도록 사료구매자금 등을 적극 지원해주도록 요청했다. 본회는 조기출하로 돼지값이 폭락하고 있는 것을 감안 집중출하를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축산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본회 전동용 회장과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대한양계협회장 및 축협, 농림부 관계자는 구랍 27일 국회 이길재 의원 사무실에서 축산관련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은 국민회의 이길재 의원이 주선했으며, 환율급등과 사료값 인상, 축산업계의 위기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본회 전동용 회장은 “정부의 시설자금 융자로 돼지 사육두수가 늘어 돼지값은 폭락하고, 사료값 인상은 양돈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시설자금 융자금액을 비축자금으로 전환해 돼지가격을 시급히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료가격 폭등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양축농가들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료원료 수급안정과 사료가격 안정, 축산물 가격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축산단체장,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협의

본회 전동용 회장을 비롯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대한양계협회장, 한국사료협회장들은 구랍 26일 서울 역삼동 소재 중식당 "도원"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축산업계의 현안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사료 가격 동향과 축산물 가격 하락 등 축산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본회, 철저한 등급판정 건의

본회는 지난 1월 12일 축산물 등급판정소에 우수 규격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철저한 등급판정을 해 주도록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의 사료값 인상으로 양돈농가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돼지 두당 5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밝히고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참작해 우수 규격돈 생산이 장려되도록 철저한 등급판정을 해 주어 양돈농가가 희망을 갖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본회, 1998년도 시무식 개최

본회는 지난 1월 6일 본회 임원실에서 전동용 회장 이하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998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전동용 회장은 "현재 IMF시대에 서 국가가 부도위기에 처해있는 등 무척 어려운 시기인 만큼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



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회장은 "양돈산업의 경우 배합사료 가격이 폭등함으로 인해 회원농가들의 폐업이 줄을 잇는 등 진퇴양난에 빠져 있으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회원들이 협회를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도협의회, 지부 소식

충북도협, 사료값 폭등 등 각종 현안문제 논의

충북도협의회(회장 : 김철수)는 지난 1월 14일 12시에 충북 청주소재 흥도회관에서 98년 1차 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도협의회에서는 본회 노영한 전무, 김철수 충북도협의회장, 그리고 충북지역 각 지부 임원·지부장 등이 참석하여, 새해가 되었는데도 환율이 계속 높이 유지되는 등 최근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배합사료값의 폭등으로 인한 생산비 가중 등 현재에 처해있는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허리를 졸라매고 이에 적극 대처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전북도협, 98년 1차 도협의회 개최

전북도협의회(회장 : 송정기)는 지난 1월 14일

12시에 전북 고창에서 98년도 1차 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도협의회에서는 본회 정호풍 지도부장, 송정기 전북도협의회장, 그리고 전북지역 각 지부 지부장·임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최근의 사료값 폭등, 동물약품값 인상으로 인하여 생산비가 너무 가중되어 휴·폐업하는 사례가 빈번한 등 양돈농가의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정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른다고 개탄하고, 그러나 이대로 놀러앉을 수는 없으며, 더욱 슬기를 발휘하여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거창지부, 신임 이봉우 지부장 선출



거창지부(지부장 : 이봉우)는 지난해 12월 8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봉우씨를 신임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부지부장에 민기현, 박한역씨, 총무 유옥용, 감사 정상

이 봉 우 신임지부장 원, 김병포씨를 선출하였다.

신임 이봉우 지부장은 거창지부 부지부장과 남거창농협 초대이사를 역임했으며,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에서 비육돈 전문농장인 그린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 자택 전화 : (0598)43-1626, 농장 전화 : (0598)944-6121

여주지부, 주소변경

여주 지부(지부장 : 윤상익)의 주소가 지난해 12월 29일부로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하리 306-6번지에서 60-4번지로 변경되었다. 전화번호와 FAX번호는 전과 동일하다.

홍천지회, 주소변경

홍천지회(지회장 : 오광년)의 주소가 강원도 홍천군·읍 신장대리 51-8번지에서 홍천군 동면 개운리 235번지로 변경되었다. 전화번호는 0366-435-5392이며, FAX번호는 전과 동일한 0336-32-7479번이다.

울산지부, 전화번호 변경

올해 1월 1일부터 울산전지역의 지역번호가 0522에서 052로 바뀌고 국번은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울산지부(지부장 : 유재환)의 전화번호가 052-262-2922로, FAX번호가 052-262-2921번으로 변경되었다. **養豚**

신 제 품

오창물산

일생연(日生研) PED-vac

전국에 PED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의 사정에 발맞추어 이번에 오창물산(대표:목무균)은 일본 일생연(日生研) 주식회사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 예방백신인 PED-생독백신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시판하고 있다.

효능 및 효과

모돈을 면역시켜서, 그 유즙을 빨아먹게하는 방식에

의한 자돈의 돼지 유행성 설사증의 예방 또는 경감

용법 및 용량

소분제품에 첨부되어있는 용해용액을 첨가하여 용해시켜서, 그 2ml씩을 2내지 8주간의 간격으로 임신돼지의 근육내에 2회 주사한다. 2회째의 주사는 분만예정 약 2주일 전으로 한다. 매 임신시 마다 2회 접종을 해야 한다.